

순창군 스포츠 마케팅 성공

최근 정구 회장기 전국대회 등 2개 개최... 3주간 9억 경제적 효과

순창군이 최근 2개의 큰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3주간 9억여원의 돈이 지역경제에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7회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에 선수와 임원을 합하면 8일간 1,2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읍내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항상 만원을 이룰 정도로 손님들이 많아 읍내에 모처럼 활기가 불었다. 군은 제37회 회장기 전국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파급효과가 8억 여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장기 전국대회에 뒤이어 지난 2일부터는 2016 ITF 순창 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가 열렸다. 10일까지 9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선수단 및 임원 250여명이 참가했다. 국제대회인 만큼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도 길어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1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순창에서 열린 굵직한 대회만 7개다. 참여인원은 2800여명에 이른다. 본격적 관광시즌이 시작되기 전임을 감안하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적지 않다. 실제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 읍내 식당에 손님들이 꽂 찬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효과인 셈이다. 4월에는 또 정구 한국대표선수 본선 최종예선전도 예

정되어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은 스포츠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광 비수기인 요즘 대규모 선수단과 임원진이 순창을 방문해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대회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각종 스포츠 관련 40개 대회와 전지훈련 113개팀을 유치해 47억여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는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수와 임원이 장기간 머물며 치루는 대회 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마을 역사 품은 노거수 영원하라

고창군,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복제나무 육성키로

풍성하게 핀 흰 꽃이 마치 그릇에 소복하게 담긴 쌀알로 보여 그 해 농사의 풍년 여부를 짐치기도 했다는 이팝나무. 고창군은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 188호로 지정된 고창 대신면 중산리 이팝나무를 노거수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전자은행을 통한 복제나무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산리 이팝나무는 수령 약 250년 정도에 높이 10.5m 둘레 2.68m로 이팝나무로서는 매우 크고 오래된 노거수로 생물학적 보존 가

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문화적 가치를 지켜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 노거수를 복제하고 DNA를 추출하여 장기보존하는 방법으로 우수 유전자를 보존한다. 군과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구축과 보존원 조성 및 DNA 지문 작성에 의한 식물법의학 증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빙기 상수도 누수 증가... '주의' 당부

남원시, 사용량 과다시 알림서비스 제공... 수용가는 반드시 수도시설 점검해야

남원시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가정 내 상수도 누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해빙기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갑작스런 물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에 과다 청구될 수 있기에 전월대비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남원시는 검침 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전화, 안내문 문자발송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내를 받은 수용가는 반드시 가정 내 수도시설을 점검하여 누수를

확인해야 한다. 상수도 누수 확인 방법은 가정 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 미터기의 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수도 미터기가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 표시가 계속 회전한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반드시 누수탐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 15조 1항에 의하면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상의 수용가가 관리해야 하는 변기,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후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상시 수용가의 상수도 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검침원이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도장,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지참하고 최종적으로 계량기 지참을 확인한 후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820-688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한국형 6차 산업화 교육

고창군이 대한민국 농촌의 올바른 미래 방향성을 위한 '한국형 6차 산업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체험마을과 가공업체,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국6차산업(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성수 영남대 식품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창군 6차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농산물 생산과 제조·가공이라는 1·2차 산업에 유통·관

광·체험·축제 등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화의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형 6차산업화의 실현을 위한 '성공 6법칙'을 제시했다. 또한 고창군만의 6차산업화 개발을 위한 독창성, 고객유도, 지역성 사업 타당성, 고객지향성, 생각의 전환 등 성공 6법칙을 고창군 실정에 맞도록 제시했다. 6차 산업은 단순히 1·2·3차 산업을 산술적으로 결합한 의미를 넘어 농부·전문가·유관기관 등 뜻이 맞는 주체들의 상호협력과 협동을 통해

박성수 영남대 교수 강의

한국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차 산업화의 성공 6법칙 중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아이টেempo 소비자와 관광객의 폭을 넓히는 독창성과 고객유도 등 1·2법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6차 산업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발굴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섬진강 자전거길' 정비

2억3400만원 조기 투입

임실군이 '섬진강 자전거길' 정비에 나섰다. 군은 금년에는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섬진강 자전거길의 안내표지판, 난간 등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정비에 나선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임실 섬진강 상류를 시작으로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48km구간으로 전국에

서 아름다운 자전거 길로 입소문을 타면서 각지의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덕치면 물우라에서 천담리까지 12km구간은 자전거를 타며 맑은 물소리와 빼어난 풍광을 만끽할 수 있어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김용택 시인 생가와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로 알려진 구암마을 등 볼거리도 풍부해 매년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특이점

임실의료원 물리치료실 '인기'

임실군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민선 6기 심민 군수 공약사항인 군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은 치료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최신 의료장비 등을 도입했다. 특히, 주민 건강을 위해 물리·도수 치료실 확장 상담 공간 마련 등의 시설확대와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기 경피 신경자극치료기, 간섭 전류 치료기,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등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친절 응대와 치료의 질적 만족을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 2명을 배치하고 농번기를 맞아 4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실시하는 등 군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30분 간격으로 임실버스터 미널에서 보건의료원까지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강진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공중위생업소 특별 점검

임실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개반 총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임실치즈메이카트를 비롯한 임실치즈마을, 관내 주요 관광지, 위생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객실, 침구 청결상태, 숙박요금표 게시 및 표시가격 이행여부와 식품위생업소 무신고(무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조리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편의점, 관광지 주변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빙과류, 음료, 냉면류,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검사 등을 병행하며 특히, 식품위생사항 미 준수 성수기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홍보를 통해 임실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어촌공, 마을 가꾸기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8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남원시 주천면 '호경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철쭉나무를 식재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주민과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마을입구에 철쭉을 심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농촌마을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더불어, 영농준비에 바쁜 마을주민들은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힘쓰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직원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함께 가꾸는 농촌은 더 행복한 농촌"이라며 "농촌마을 방문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행복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